

전북 국회의원,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 총력전

전북, 농촌 난개발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전북 의원들 기자회견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 "180만 염원 지켜야" 남원 공공의대 재추진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전북의 입법분야 최대 숙원인 '대공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안효영, 한병도,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를 양성하여 지역 및 의료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북 남원과 제3의 농어촌 지역에 공공의대를 정부가 설립하여 공공의사를 양성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강제로 근무토록 하

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지난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 증원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정부 및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에 따라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완전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멈춰있던 공공의대법을 본격 추진기로 했으며, 그 선봉에 박희승의원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선 것이다.

앞서 박 의원과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 의원 등은 민주당과 국회 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법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등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면서도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행의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 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 공공의대(학)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으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등은 "우리는 너무 오래 기



박희승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입법분야 최대 숙원인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전북타임스>

다렸고,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다.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많은 시민단체도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 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남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지지난 대선 및 총선,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공약이었으나 의료계와 정부의 반대 등으로 장기 표류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다움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도의 지역재생 본격행보는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으로, 도내 13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전문가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별로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협의체 본격 운영을 위해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워크숍을 1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 핵심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협의체 운영계획과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도는 올해 순창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정부,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전북대 142명 원광대 93명

의대 모집인원 회귀 도내 321명→235명으로 "의대교육 정상화 수용"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전북지역 의대 모집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렸다.

의대 증원으로 321명으로 늘었던 전북지역 의대정원은 다시 235명으로 줄어든다.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는 지난

해 의대 증원으로 171명의 의대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증원 전인 142명으로 돌아간다.

원광대학교 의대 또한 지난해 150명 모집에서 93명으로 회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학교로 복귀할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회귀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지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각 대학은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오는 5월 대교협을 통해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이 확정된다.

/최성민 기자



고창 아산면 이팝나무 '꽃처럼 피어난 명예'

전북 고창군 이팝나무가 아름다움과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2025 올해의 나무'에 선정됐다. 해당 나무는 조선 정조 3년(1779년) 밀양박씨 세보에 식재기록이 기재돼 있어 수령은 약240년으로 '노거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전북자치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 변하지 않는 진실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道,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본격화

전북프렌즈 연내 10만명 가입 할인가맹점 300개소 확보 목표

전북자치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고항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7일부터 '전북사랑도민', 가칭 '전북프렌즈'를 중심으로 연내 전북프렌즈 10만명 가입, 할인가맹점 300개소 확보를 목표로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와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해 제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사랑도민'은 전북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민과 전북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과의 유대 강화와 생활 인구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관광, 농·축·수산물 소비, 고항사랑기부제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정주 기반까지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열기를 조성하고, 전북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는 전북사랑도민제의 참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출향 도민, 중앙부처 항우, 직원·지인 등 연구자, 관광객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전 실·국이 협업하는 전방위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할인가맹점은 기존 68개소에서 300개소로 대폭 확대해 14개 시군과 협력해 주요 맛집과 관광지 발굴, 대표 축제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생생장터, 투어패스, 전북농촌여행 참가 등 도내 주요 서비스 플랫폼을 연계해 '전북사랑도민'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투어패스 1일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생생장터와 참가 가입자에게는 할인가뽀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그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홍보 방식에서 도내 외 주요 공간과 채널을 활용한 전방위 온오프라인 홍보로 확대하며 △실과소 및 출향도민 단톡방(130여개) △홈페이지·SNS 등 도정 홍보매체(36개채널) △도 홍보대사·과외블로거 △이전기관(14개소) 등 다양한 경로에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친구하고 다양한 혜택받자' 슬로건을 활용한 홍보 영상(30초)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도내 유명 맛집·관광지·숙박업소, 역·터미널 등에 설치·배포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전북자치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사진=전북자치도>

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을 위한 기존 과장 주재의 2개 팀 체계에서 벗어나 '전북사랑도민중가임 TF'를 국장 주재로 격상하고 도 관련 부서, 14개 시군, 외부 전문가 및 전

북도민회중앙회, 전북에향본부까지 참여하는 범도민 협업 체계로 확대 구성 운영한다.

TF는 △도민중가임 확대 △고항사랑기부금 활성화 △전북투어패스 및 생생장터 운영 등 전북사랑도민중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바이오진흥원, 식품기업 창업 지원

유망 기업 20개사 선정 고도화 컨설팅·홍소핑 등 4억원 규모 맞춤형 멘토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협약 체결 및 Kick-off 회의를 17일 진흥원에서 개최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식품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사업의 수혜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매출성장형 기업은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전시회 참가, 제품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또 수혜기업은 진흥원 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화 및 투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20개사를 선정해 4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협약 종료일까지 도내로 분사, 사업장, 연구소 등을 이전·설치 할 계획이 있는 업력 7년 미만의 식품 분야 창업기업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투자유치형'과 '매출증대형'이라는 성장유형 분류체계를 도입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 시동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200MW 발전사업시행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 신호탄을 울리며 본격화 한다.

전북자치도는 17일 고창 인근 해역 약 55km를 대상으로 한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개 모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해당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자는 해당 해역에서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전체 사업기간은 총 25년으로, 인허가 및 건설(2025년 10월~2030년 9월) 5년, 상업운영(2030년 10월~2050년 9월) 20년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계획'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 없이 개방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군 전과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을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공모 참가자를 위해 풍향 계속 데이터, 전력계통 연계자료, 사업성 분석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여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돼 고창은 물론 부안

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의 협업은 물론, 향후 부안해역 추가 사업자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전북자치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모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국가교육위원 위촉돼

"국가교육비전 수립 제도 개선 적극 기여하겠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교육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2022년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과 교육정책 조정을 수행한다.

양오봉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

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에서 추진해 온 교육 혁신과 지역 상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의 비전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기여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오봉 총장은 1962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실리론계 태양전지 연구 등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력을 인정받았다.

국내외 학술지에 14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외 특허 38건을 보유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 시장·군수協,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공동 결의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7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양수발전소의 진안군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제안 설명에서 "진

안 양수발전소 유치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발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다"며 "전북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7년에 걸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운영 기간인 50년 동안 약 1,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

되는 등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은 △사업 예정지 내 수몰 가구가 없다는 점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한 입지 여건 △지역 사회의 강력한 유치 의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다

각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안군

은 이번 결의를 토대로 범도민 유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현을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는 전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민 기자

사고 없는 봄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산행전 날씨 확인 등
필요한 정보수집



금지, 위험구역대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구조요청시,
국가지번호 활용



산행에 필요한 장비, 옷
식량 등 준비물 철저히

타박상, 굶힘 등
사고대비 구급약 준비

“자산운용 중심 전주금융중심지 전략 세워야”

전주시정연구원 “금융분야 정량적 분석 통해 차별화 자산운용기관 유치 바람직”

전북자치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분야별 특성에 기반한 전주 금융중심지 입지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연구원은 ‘JRI 정책브리프 제8호’에서 ‘금융분야별 특성과 전주 금융중심지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로 한 이번 정책브리프에서 금융기관들의 적합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금융분야별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통해 자산운용 분야의 차별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전주

시 역량 평가와 결합한 전주시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수립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금융기관 비즈니스 관점에서 금융 분야별 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은행·보험·증권 분야는 고객 접점의 지점망이 영업의 중심인데 반해 자산운용의 경우 이들의 펀드판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달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자산 운용 능력이 핵심인 정적인 분야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반영해 선진권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변화한 대도시만이 아니라 전주와 같은 전원적 환경의 중소도시에도 분산돼 위치하는 것이 주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적합입지 결정 요인

들을 AHP(계층화 분석법)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산운용 분야는 실제 입지선택에 있어서 수요 기반의 중요도를 다른 분야보다 낮게 평가하고, 대신 환경요인을 여타 분야보다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전주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에 대해 입지 역량의 비교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주는 수요 기반과 산업 인프라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지만 환경과 생활 인프라는 양호하게 나타나 자산운용이 가장 적합한 금융 분야로 분석했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정책에 의해 시설·비즈니스 인프라가 개선될 경우 전주의 자산운용 분야 금융입지 종합 점수가 부산 수준에 근접해, 금융중심지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산운용 중심과 신기술 융합형 금융 등에 특화된 전주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했으며, △금융기관 전주 입지 및 집적을 위한 전략 △전주시 지역발전과 연계 전략 등 전략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번 ‘JRI 정책브리프 제8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i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는 전주 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전주시 산업 대안으로서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의회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전윤미 의원, 지역 건설산업 시장 활성화 대책 촉구

채영병 의원, 산불 대응체계 강화 주문

천서영 의원, 산림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 강조

한승우 의원 “해고된 8명 청소년노동자 복직 대책 마련해야”

17일 전주시의회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윤미 의원

▲전윤미 의원(호자2·3·4동)은 부도 등의 위기에 놓인 지역 건설산업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체 99개, 전문건설업체 145개가 폐업한 실태를 언급했다.

이어 △공공도급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80% 이상 조례 명시 △전담팀 신설 및 공식 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전주형 뉴딜사업 확대와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채영병 의원

▲채영병 의원(호자2·3·4동)은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채 의원은 “최근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불예방 근로



천서영 의원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산림 밀착형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무상비상호출기가 부

작된 감시카메라가 49대 설치됐으나, 송출 위치 불일치와 관리 주체 불명확 등 문제가 있다”며 “주기적 점검과 안내 체제 정비, 기능 통합 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

▲한승우 의원(삼천1·2·3, 호자1동)은 해고된 청소년노동자 8명에 대한 복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쓰레기

수거 2차 권역화 과정에서 기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지켜지지 않은 고용승계 원칙, 노조 주도권 다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인만큼 전주시가 책임지고 복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양영환 시의원, 주택가 분리수거함 구조적 개편 촉구

수거함 불법 쓰레기 되레 난무 폐기물 한 번만 장소 배출해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17일 주택가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되레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 배출지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구조적 개편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도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 편의에 맞추어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통일’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의 분리수거함이 편리함을 위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점점 불법 쓰레기 집중 배출지로 변질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201개, 덕진구



양영환 시의원

252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수치상으로는 폐기물 배출의 편의가 잘 갖춰진 도시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분리수거함 주변에 종량제 봉투 등 일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행위가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보다 일반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전주시 역시 분리수거함 주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및 과태료, CCTV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매년 약 4억 원 상당의 시민 형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문제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재활용품은 공동 분리수거함에, 종량제 봉투는 집 앞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쓰레기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버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분리수거함은 주민들에게 ‘공공의 배출장소’처럼 인식됨이 자명하며, ‘쓰레기를 편하게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즉, 현재의 분리수거함 주변 무단 투기 문제는 주민들이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규칙이 현실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양영환 의원은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흐름에 맞는 배출방식, 즉,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의 배출장소를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배출 시설 모범 사례로 익히 알려져 있는 ‘제주 플린하우스’는 재활용품뿐 아니라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모에서 인도네시아 분당시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 도봉구, 전주시,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지정된 요일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양 의원은 “시민 의식을 타히기보다 폐기물 배출 구조 자체를 혁신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전주시장은 분리수거함 주변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한지장인 후계자 5명 양성 본격화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갈 한지장인 후계자 5명 양성 및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전통한지 제조기술을 계승하고 한지문화를 보존하는데 뜻을 함께할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통한지 장인대학 교육생 과정은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전통한지 장인 교육은 한지 전문가와 전주 한지장 등에 의해 이론과 실기 등으로

이뤄지며, 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교육 세부 내용을 입문·기초·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해 각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으로 선정된 지원자들은 교육훈련 기간 △전주시 생활임금 수준의 교육훈련비 △각 과정별 통과자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기업 탐방 기회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5월 28일 오후 4시까지 전통한지 장인대학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합격자를 선정하고, 교육생들은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

통한지 장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후계자 모집 예정 인원은 5명으로, 전통한지 제조 기술을 습득해 향후 전통한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등 전통한지를 계승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는 선정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전주한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3년차에 본향의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이번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사업을 통해 끊어져 가는 전통한지의 맥을 잇고 전통한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사업은 지난 3월 한솔제지와 체결한 ‘전통한지 보존 및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한솔제지로부터 2년간 사업비의 일부를 후원받아 진행된다. 이는 국내 최대 종이 업체인 한솔제지와 전주시가 전통한지 보존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후계자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후계자들이 전주 전통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평생학습관 ‘시와 음악의 치유인문학’ 운영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행복한 삶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인문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전주시평생학습관(관장 전아미)은 인문학을 산책하듯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유쾌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유쾌한 인문학에서는 시와 음악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시와 음악의 치유인문학’을 주제로 진행한다.

‘마음챙김의 시읽기’는 김정배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음악 삶을 위로하다’는 오은하 피아니스트가 각각 강의를 맡는다.

또한 이번 유쾌한 인문학(고전)에서는 이형성 전남대 학술연구교수가 진행하는 ‘성찰과 통찰을 키우며 행복으로 가는 길 -심역’ 강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평소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자녀 양육 때문에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동 시간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인문학 ‘시와 노랫말 그리고 그림책’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유쾌한 인문학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3만 원(어린이 인문학=5000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올해 유쾌한 인문학을 ‘고전과 현대 인문학’을 주제로 정하고, △동양고전의 정수인 주역 강의와 니체와 행복 △음악인문학 △현대철학 △동서사미학 △인문신화 총 5개 시즌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유쾌한 인문학 시즌1에서는 ‘주역-신화와 협력’ 강의와 더불어 ‘니체와 삶의 의미’ 강의가 진행될 바 있다.

전아미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인문



학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인문학의 향기가 넘치는 인문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에서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족 단위나 개인 여행객들의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씨 관리 소홀이나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캠핑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용객 스스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강봉화 서장은 “캠핑장은 도심권보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모두가 사전에 안전을 준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불씨 하나가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작은 실천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병원-전남대 의공학부, 의료기술 연구 업무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센터장 고명환)는 전남대학교 의공학부 및 헬스케어의공학연구소와 함께 혁신형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의 협력 연구를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조광영 단위의 지역 간 협력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함께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전북대병원이 연구 중인 중추성 통증의 진단·치료 기술과 전남대가 보유한 비침습적 뇌 활성화 측정기술을 상호 공유하며, 향후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업무협약과 워크숍을 통해 난치성 질환인 중추성 통증에 대한 혁신적인 의료기술 개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의미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병원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제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젊은 임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제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젊은 임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미래 수산업 8개분야 857억 집중투자

전북형 양식산업 육성 지역특화품종 생산·방류 맞춤형 수산물 생산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수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속가능 수산업 실현과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수산분야 8개 분야에 총 85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8개 분야는 '바다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수산물 품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향상',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전북형 양식산업 육성',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촌 맞춤형 지원' 등이다.

먼저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03억원을 투자한다.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건

강한 어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설치 및 해중림 조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자 625만마리를 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어선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수산자원의 회복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어획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또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에 총 96억원을 투자해 노동력 중심의 전통 양식산업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화 시설 보급, 수질 모니터링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양식 모델을 확대한다.

주요 양식품종인 바지락과 김 대체 품종으로 개체굴 등 시범양식 및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수산물품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를 122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수산물 생산 전조기지를 구축해 2공구에 대단위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조성하고 현재, 12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

해 오는 '26년까지 수산물 가공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수산업의 공익가치 증진과 어업인의 복리향상에도 198억원을 투자해 어업안전, 복지 지원, 재해 예방 등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존 어가에 지급하던 어민 공익수당을 금년부터는 어업인으로 확대 지급하고, 어업인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도록 수산정책보험 및 소형어선 안전장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활력 도모에는 257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어촌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특화 자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며, 공동체 중심의 지역활성화 모델을 확산시켜 인구 감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어촌 정착 지원을 45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전북형 청년어촌 정착지원을 새롭게 시작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및 어촌 특화 운영을 통해 어촌지역 창업 활성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어촌 활력을 도모하여 살

기 좋은 어촌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64억원을 투자해 토하를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표준양식장 모델 제시, 데이터 기반 양식시스템 구축 등 첨단 양식기술 개발에 나선다.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에 7억원을 투자해 도내 해역에 9개 품종, 7,115천마리를 무상방류하고,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구한 육상 김 양식기술은 특허 등록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촌 맞춤형 지원을 위해 11억원을 투자한다.

전북자치도는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17일 하양진 농협전주시지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강조했다. <사진=전주농협>

하양진 농협전주시지부장, 전주 쌀 홍보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아침밥 먹기 운동 촉진도

하양진 농협전주시지부장은 전주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및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17일 하 지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협찬 깃발을 휘둘렀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우리 전주 쌀' 우수성과 지역 쌀을 활용한 가공품 나눔으로 쌀 소비촉진 효과를 증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큰 관심 증인 근로소득자를 직접 찾아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양진 지부장, 이육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인제개발원 교육생 등

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물과 전주시 담례품으로 선정된 전주농협 현미 누룽지 등을 나눠주며 고향사랑 기부와 아침밥 먹기 동참을 권유했다.

농협전주시지부와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주시, 12월 농촌진흥청과 국토정보공사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하양진 지부장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와 함께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달라"며 "농협전주시지부는 전주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 쌀 소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혁신의료기기 허브 도시 도약 '머리 맞대'

혁신의료 전문가 초청 세미나 비임상시험 역량 강화 모색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혁신의료기기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는 17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혁신의료기기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혁신의료기기 허브도시와 관련해 실증센터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혁신적인 정형외과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에서 두각



전주시와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는 17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혁신의료기기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인 정석 고려대학교 교수와 정화철 시지메드텍 이사가 실증센터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등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문을 연 메카노바이

단 의료기기 기술의 실증과 연구개발을 지원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신뢰성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상용화 과정에서 비임상시험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필수 단계로, 물리적·화학적 안정성 및 생체 반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인 비임상시험을 통과해야만 국내외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어 실증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인증분야가 전신 독성 1개 항목에만 한정된 안전성평가연구소(정읍) 단 1곳뿐으로, 전주시는 전북대와 협력해 실증센터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인증 분야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더 많은 의료기기 기업들의 인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농진청,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축산농장 방역 강화

축사 소독 동선 분리 권장 고온건조방식 효과 극대화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행태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 강화로 소독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 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

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한다. 또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 시키며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해 출입인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도움을 주고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 등(레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

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출 부위까지도 소독할 수 있고,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아 자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약제 소독 방식과 병행할 경우,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름철 축사 내부 온습도를 조절하는 안개분무장치를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성과 소독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청장 김재환)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행태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 강화로 소독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 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개최된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주 김제완주축협이 조사료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농협중앙회 전북>

전주김제완주축협 '축산경제 연도대상' 수상

2024년 조사료사업 부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총괄본부장 이정환)에서 개최된 '2024년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이 조사료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기후 변화와 국제 곡물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료의 계획적 재배 확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지역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은 축협의 지도·경제사업 추진 분위기 조성하고 이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매년 10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사무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창수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 흘리며 이뤄낸 성과로 조합에서는 축산농가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조사료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신협중앙회 상반기 신입직원 전국 공개채용

전국 24개소 37명 내외 채용

신협중앙회는 전국 27개 대상 37명 신규직원 공동채용 공고를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직원 지원 접수는 17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오후 6시까지 신협중앙회 홈페이지(cu1.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5월 21일 발표되며, 필기전형은 5월 31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6월 12일부터 모집 신협별 면접전형을 거쳐, 6월 24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모집 신협이 소재한 지역의 인재를 우대할 계획이다. 연령·학력·전공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동채용 제도는 신협중앙회가 채용 계획이 있는 신협(조합)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채용공고부터 서류 및 필기전형까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전국의 우수 인재를 신협에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조합의 채용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신협중앙회 장익수 조직문화혁신추진단장은 "신협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협동조합"이라며 "신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열정과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채용정보는 신협중앙회 홈페이지(www.cu.co.kr)의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과정 운영

비수도권 최초 재인증 획득 지속가능 마을운동 전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 김보금)는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과정'을 운영 계획을 밝혔다.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과정' 운영은 오는 29일 30일 양일간 전북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 10일 전주시는 비수도권 최초 공정무역도시로서 재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 도시인증을 위해서는 △시 조례 △제품 사용 및 판매처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대학 실천기관 △교육 및 캠페인 △공정무역 위원회 조직 등을 갖춰야 한다.

먼저 지방정부가 공정무역 지지와 공정무역제품 사용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공정무역 제품사용 및 판매처가 인구 25,000명당 1곳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대학과 실천기관 등 교육·캠페인·홍보 활동을 진행해 온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공정무역도시의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증하며, 공정무역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된다.

전주시는 공정무역 도시로 2021년 9

월 23일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두 번째 인증을 받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지역에 공정무역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관 운영, 공정무역역커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나눔공정가페를 운영해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전주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에 크게 기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2025년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하여 전주시가 공정무역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과정은 오

는 29일, 30, 오후 2시~6시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이강백 대표(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의 '공정무역 가치와 단체의 역할' 강의를 시작으로 광명사회적경제센터 차유미 담당자로부터 '광명시공정무역 활동사례와 네트워크 강화 방안' 강의, 김기정 이사장(가치이음협동조합)의 '놀이 배우는 공정무역 체험 활동' 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가 신청은 30대 이상 ~ 60대 미만의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일간의 교육 수료 후 공정무역 홍보관, 캠페인, 강의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관광객맞이 막바지 혼신

30일~5월9일전주시일원
57개국 224편 영화상영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전 세계 영화인과 관광객 맞이에 막바지 혼신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펼쳐지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관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영화제 기간 중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 고사동 영화거리 등 전주시 일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공간을 조성하기 위

해 △집중 안전 점검 △불법주정차 단속 △영화의 거리 정비 △청소대책 △불법광고물 정비 등 안전·교통·청소·미관 등 각 분야별 집중점검에 임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영화제가 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달 '당신의 봄을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선발된 전주국제영화제의 자원활동가(지프지) 420여 명도 관객의 영화 관람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간 고사동 영화거리의 다양한 전주시 일원에

서 펼쳐진다. 개막식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고, 폐막식은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 공모에 1835편, 국제경쟁부문 공모에 86개국 662편이 출품돼 2년 연속 한국영화 최다 출품 기록을 경신하는 등 개최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으며, 열흘간 57개국 224편의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라두 주데 감독의 <콘티넨탈 '25>, 폐막작은 김옥영 감독의 <기계의 나라에서>다.

영화제 대표 부대행사로 자리 잡은 '골목상영'은 영화의거리 일대와 풍남문, 한벽터널, 전주부채문화관, 영화정보도서관, 예곡시터광장, 서학 예술마을 열린마당 등 상영 장소를 11곳으로 확



대해 더 많은 시민이 생활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재근 기자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수업권 보장한다

특수학급 수업지원 순회 교사
특수교육 교원 근무 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결·보강 수업 지원 순회 교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예기치 못한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으로 수업이 결손될 때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결·보강 지원이 없어 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보장이 미흡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특수학급도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수교사도 교내에 장애 학생 수업을 담당해 줄 전문 교원이

없어 복무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근무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 결강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해서 특수교육 순회 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 7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시범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그동안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업 결강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현장 교사는 물론 학부모의 호응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1호 IB 워크숍 리더 전문가 탄생

전주이중초 김태화 교사
수업혁신 이끄는 핵심 역할

전북 1호 IB 워크숍 리더 전문가가 탄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IBEN(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Network) 과정에 전주이중초등학교 김태화 교사가 참여, IB 워크숍 리더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B는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 단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교육 체계이며,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기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국제 교육 기준 프로그램이



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크게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IBEN은 IB 프로그램의 품질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교육자들의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다른 IB 교육자들과 교류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IB 워크숍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IB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IB의 사전 연수를 이수해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국제적 소통이 가능한 언어 능력과 IBEN 선발 절차를 통과하는 것도 필수 요건이다.

김태화 교사는 IB 후보학교 코디네이터로서 전주이중초의 IB 월드스쿨 인증 준비를 총괄·기획하고 있으며, 학교의 월드스쿨 인증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교사는 "향후 국내외 IB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식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전북교육청의 수업과 평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가 국립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 중심의 멘토링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우석대, 전북기계공고 3학년 대상 멘토링 성황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박노준)가 국립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 중심의 멘토링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 3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산업체 요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230명은 산업 트렌드 분석과 직무 역량 강화, 자기소개서 사

례 구성 방법, 비즈니스 매너 이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직무 능력을 배양했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인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1학교 1인성브랜드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학교 1인성브랜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별로 수립한 인성교육 계획을 반영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각 학교는 전북 인성교육 3

대 핵심덕목(책임, 존중, 세계시민성)과 8개 하위요소(자기정체성, 성실, 지속성, 공감, 효·예, 갈등관리, 평화공존, 생태감수성)를 바탕으로 인성브랜드 주제와 주요 활동을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교원들로 구성된 민주시민·인성교육 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별 인성교육 실천 사례를 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강화

일반·특수학교 교장 50명 참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1기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 관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 연수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50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영 △인권적 학교 공동체를 위한 학교

규칙 이해 △사례 중심 학교 구성원 인권침해와 대응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김명철 센터장은 "학교 관리자의 인권 감수성과 실천 역량은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관리자들이 인권 감수성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호흡기 건강 캠페인 |

미세먼지 스마트한 대처법



1. 되도록 창문을 열지 않고 차단하기



2. 외출시 모자, 안경 마스크 착용하기



3. 하루 8잔 이상 수시로 물 마시기



4. 손 씻기, 세안, 양치 꼼꼼히 하기



5. 중금속 배출해주는 미역, 과일, 채소 섭취하기



함여고 시니어반 운영 익산시, 학습환경 지원

익산시가 배움에 도전하는 어르신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시는 17일 함여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 교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송혜영 함여여자고등학교장, 시니어반 학생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에 시니어반을 편성한 함여고에는 평균 나이 69세(최고령 83세, 최연소 52세)의 학생 16명이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시니어반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학습환경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장거리 거주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과 휴식 공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우선적으로 낭산면 거주 학생 3명에게 통학용 택시를 지원하고, 통학버스 등 안정적인 이동 수단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 측과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봄빛 품은 정원' 시민 손으로 정읍 시민정원사 활동 시작

정읍 시민정원사들이 봄을 맞아 실습정원에 봄꽃을 식재하며 시민정원 가꾸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읍시는 2019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해 수료한 시민정원사들은 정원 가꾸기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뒤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정읍읍 앞 사색정원(정읍사로 594) △단장생태공원(내장동 364-2) △내장호 야생화동산(쌍암동 산125-3) 등 주요 실습정원에 송엽국, 가자니아, 팔초나무 등을 식재했다. 봄의 생기를 머금은 정원은 시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시민정원사들은 이번 식재 활동을 시작으로 제초, 관수, 수형 관리 등 실습정원의 유지관리를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특화작은도서관, "배움으로 더욱 풍요롭게"

익산시 특화작은도서관에서 배움과 체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특화작은도서관 배움-채움 특별강연'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늘봄 △올림 △예술 △동산 △부송 등 작은도서관 5개소에서 시, 영화, 건강, 만화, 동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늘봄작은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시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9일에는 서호시 시인과 함께 봄 길을 걸으며 다카시를 체험한다. 올림작은도서관에서는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참여형 강연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모현시립도서관(063-859-3728) 또는 각 특화작은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연속 선정

총 국비 1억 9천만 원 확보 문화관광 편의 제공 향상

군산시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2025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군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사업 선정 후 관광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내 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관광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 혜택의 품질 향상 △실질적 지역 관광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협의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 군산항 여객 터미널을 재구성하여 '군산 여행자 쉼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쉼터는 관광객에게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재단은 올해 초 '군산문화재단'에서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관광사업이 지역 문화와 관광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정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가갸호호'> 사업이다. 재단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영유아부터 중장년층,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이름인 '가갸호호(家加好好)'는 '가족이 함께하니 더없이 좋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의미이다. 재단은 도서관,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 간 유대 강화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군산 관광의 불변 요소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염산 유출 사고' 재발 막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화학사고 대응-대비 태세 강화

정읍시가 지난해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지역 화학사고 대응 및 대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읍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인 유호연 부시장과 전북지방환경청, 시의원, 정읍소방서, 화학·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복면 제3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의 현황과 향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당시 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염산 약 9톤이 누출돼 인근 장학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시는 염산이 동진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1.7km 구간 방제둑 4곳을 긴급 설치하고 3일간 오염된 폐수 1117톤을 수거·처리하며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신속히 진화했다. 이후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4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 1월 중 완료했고, 누출·유출 감지 경보 설비 설치 여부 등 시설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과 3월 장학천 토양의 퇴적물을 분석해 염

산의 중화돼 안정화됐음을 확인했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장학천의 어류 생태조사를 통해 환경 영향 여부를 세심히 관찰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실질적 사고 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한 교육 실시 필요성, 유해화학사고 대응체계 보완과 행동조치 매뉴얼 재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유호연 부시장은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화학안전 정책을 점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시민들이 살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정읍시에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익산시가 정읍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재난에 함께하는 이웃 도시의 든든한 동반자로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7일 정읍시청을 찾아, 정읍지역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1,580만 원과 구호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익학수 정읍시장과 강태순 익산시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해 전북도민 간 따뜻한 연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번 기탁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산불피해 성금·물품 모금운동'을 통해 진행됐다. 시민과 기업,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정성이다. 익학수 정읍시장은 "익산의 따뜻한 손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시는 정읍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가 발생한 정읍, 무주 등에도 연이어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을 넘어선 나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따뜻한 연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웃의 고통에 익산시민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이 닥칠 때 이웃과 함께 손을 맞잡는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군산소방서, 수산물종합센터 임시 매장 안전 강화

민관 협력 안전 교육 진행

군산시가 군산소방서 금동119안전센터와 함께 수산물종합센터 임시 건어 매장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산물종합센터 노후 건어 매장 신축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 건어 매장의 안전 강화와 상인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16일 상인회장과 군산소방서 금동119안전센터·군산시 수산물특화단지 관리팀은 한자리에 모여 민·관 화재 안전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소방 안전과 화재 예방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뤘다. 간담회가 끝난 후 소방서 측은 임시 건어 매장 점포에 30개의 수동식 소화기를 보급하는 한편, 상인들과 직원들



에게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교육도 함께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상인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민관 협력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정읍시의회(의장 박익)는 지난 14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위촉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으며, 고경윤 의원을 대표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결산 검사는 1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

정읍시, 귀농·귀촌 성공 돕는다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농업인 기초농업교육을 시작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부터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농업기술교육'에 돌입해 정읍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5월 15일까지 총 11회, 44시간에 걸쳐 이뤄지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기초부터 실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강의실과 실습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작목별 재배기술과 농업 회계, 농지 및 관련 법률, 농기계 활용법 등 실제 농촌 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청렴주의보' 발령...공직기강 다잡는다

대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익산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방지에 나선다. 익산시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7일 오후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

한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공

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권 개입, 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한 비리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는 선거철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사소한 행동이 선거권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청렴도시 익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현장 점검

군산시는 지난 16일,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내 주요 지질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군산군도의 지질 유산 보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제기된 환경 및 개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래는 방축도, 명도 등 도서 지역을 탐방하려고 했으나 기상악화로 이번에는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명소를 우선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장에는 군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6명이 참여했으며, 아미도, 신시도, 장자도 대장봉 등 고군산군도의 주요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지질 유산 훼손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접근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지질공원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한국의 갯벌' 국제심포지엄

갯벌 보전·관리방안 논의 전문가 국제적 협력 다짐

고창군이 17~19일 고창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와 고창갯벌 일원에서 '한국의 갯벌-CEPA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 협력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심포지엄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RSPB(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함께했다.

17일 열린 개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제니퍼 조지(Jennifer George) EAAFP 대표, 안 바오화(Yan Baohua) 중국 맹그로브재단 사무총장, 아나 슌제진스키(Anja Szczesinski) IWSS(국제와탄해학)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해 '한국의 갯벌'의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 열린 본행사에서 △IUCN 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올리비아 사소 담당관 △동아시아라파사르지역센터의 서승오 센터장 등이 '국제기구의 CEPA 전략과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 △와탄해 세계유산센터의 버나드 라우후트 사무국장 △RSPB의 제프 큐 담당관 등이 '해의 방문자센터의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의 갯벌'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고창갯벌 현장견학'을 통해 고창갯벌과 섬(죽도)에서의 탐조활동, 저서생물 관찰 등 갯벌을 직접



고창군이 17~19일 고창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와 고창갯벌 일원에서 '한국의 갯벌-CEPA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고창군>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고창갯벌 현장견학'을 통해 고창갯벌과 섬(죽도)에서의 탐조활동, 저서생물 관찰 등 갯벌을 직접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고창갯벌 현장견학'을 통해 고창갯벌과 섬(죽도)에서의 탐조활동, 저서생물 관찰 등 갯벌을 직접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산사 문화·치유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오는 19일 시작

김제시(시장 정성주),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금산사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통산사가 보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특색 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마음 쉬는 토요일'은 국보 미륵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전통문화 속에서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금산사 오층석탑 해체 조립체험 △대장전 소슬금강저 염색체험 △미륵전 목판인쇄체험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반려식물만들기체험 △마음 쉬는 콘서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은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산사에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한편,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금산사 전통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10개 농업인단체 국토대청결·인구지키기 캠페인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6일 농업인단체와 함께 고창읍 노동마을부터 노동저수지 일대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했다.

행사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10개 단체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농업인단체 회원들은 고창군의 떠오르는 대표 관광지인 노동저수지를 중심으로 노동마을부터 오양골프연습장까지 버려진 빈병, 휴지 등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이번 청결운동은 고창군의 인구 5만 명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단체와의 결의행사와 연계해 진행했다. 농업인단체는 '고창 인구 5만 지키기'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현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과 함께 고창의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백산면지사협 사랑등불 독거남에 밀반찬 지원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은용)가 지난 16일 2025년도 특화사업으로 결정된 독거남성을 위한 '사랑등불 밀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추김치, 오이무침, 멸치파리고추볶음, 장조림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어 포장,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발급된 독거남성 40세대 가정에 밀반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독거남성들이 자주 접할 수 없는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이번 밀반찬 지원사업을 통해 백산면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더하는 동시에, 독거남성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정찬일 백산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잘 살아가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은 연간 총 5회 밀반찬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 벚꽃축제 평가 20만명 방문 대성공

고창군이 지난 15일 제3회 고창 벚꽃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아쉬운 점을 되짚으며 내년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식 고창군부군수를 비롯해 축제 운영 실무자, 관계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축제의 여러 분야에서 함께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축제 기간 동안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축제는 지난 5일 토요일에 내린 갑작스러운 비와 축제 기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아 성황을 이뤘다.

SK텔레콤 빅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30분 이상 축제장에 체류한 방문객 수가 약 20만명으로 집계되면서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됐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며 "이번 축제가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 광활 시설감자 수확 한창

정성주 김제시장, 현장 방문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16일 감자 수확이 한창인 광활면 시설감자 재배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자 수확 현황을 살피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광활면에서 현재 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해풍을 맞으며 자란 광활감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을 자랑하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전국 시설감자의 30% 이상을 생산하며, 5월 말까지 수확이 지속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폭설, 2월 냉해, 3월 강풍 등 잇따른 기상 악조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복구 지원 및 기술지원을 강화했다. 감자 생산량은 예년보다



5~10% 감소했지만, 품질면에서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도 향상됐다. 이는 시의 적절한 대응 노력과 농업인들의 대처 덕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정 시장은 "올해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이 가능해졌다"며 "수확철이라 바쁘지만 농기계나 작업도구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정원형 화단 조성 도심 경관 새단장

피라칸사스·경계 로프 제거 그라스류·관목 조화 이뤄 시각적 즐거움 시민 호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도심 곳곳의 가로경관을 정비하며 도시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시는 최근 시청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중심 거리 중앙분리대의 피라칸사스와 경계 로프를 제거하고, 다양한 그라스류와 관목이 조화를 이루는 정원형 화단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를 통해 단조로웠던 도심 경관이

한층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바뀌어 시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교 주변 성산회전교차로에는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해 도심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연출했으며, 교통사거리·용동오거리·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는 기존 조형물과 초화류를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해 단조로웠던 공간에 소나무의 녹음을 더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병원사거리 회전교차로에는 김제를 상징하는 배롱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통해 단조로웠던 도심 경관이

한층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바뀌어 시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교 주변 성산회전교차로에는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해 도심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연출했으며, 교통사거리·용동오거리·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는 기존 조형물과 초화류를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해 단조로웠던 공간에 소나무의 녹음을 더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병원사거리 회전교차로에는 김제를 상징하는 배롱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통해 단조로웠던 도심 경관이

한층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바뀌어 시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덕암고등학교 앞과 시민문화체육공원 사거리의 화단을 수국과 그라스류로 새단장해 자연과 어우러진 풍성한 경관으로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곳곳의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일상 공간을, 방문객에게는 김제시만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꽃과 정원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통해 단조로웠던 도심 경관이

한층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바뀌어 시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교 주변 성산회전교차로에는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해 도심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연출했으며, 교통사거리·용동오거리·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는 기존 조형물과 초화류를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해 단조로웠던 공간에 소나무의 녹음을 더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병원사거리 회전교차로에는 김제를 상징하는 배롱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통해 단조로웠던 도심 경관이

한층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바뀌어 시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교 주변 성산회전교차로에는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해 도심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연출했으며, 교통사거리·용동오거리·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는 기존 조형물과 초화류를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해 단조로웠던 공간에 소나무의 녹음을 더했다.

전북시장군수協, 전주~김천 간 철도 확충 건의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회의 현안 12건 심의·의결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지난 17일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모여 지역 현안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 회신 결과를 비롯해 전주~김천 간 철도 확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건의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전북

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익현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지난 17일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모여 지역 현안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잇따른 산불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 고불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장 경기불황 등 소상공인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내 시장·군수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경제 불황 타개 및 지역 발전 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통해 단조로웠던 도심 경관이

한층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바뀌어 시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교 주변 성산회전교차로에는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해 도심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연출했으며, 교통사거리·용동오거리·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는 기존 조형물과 초화류를 정비하고 수

남원, 쌀값 하락 농민 8300명에 17억 지원

민선8기 공약사업 본격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용 25일까지 읍면동 접수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24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업인 8,300여명에게 총 17억 7,500만원을 지급한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과잉 생산 및 수급 불균형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 시 최소한의 경영비 보전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남원시는 2026년까지 농산물 가격안

정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23년 40억원, 2024년 40억원, 2025년 10억원 을 마련해 현재까지 총 90억원을 조성 했다.

이렇게 조성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기금으로 농민들이 경제적 불안없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 남원시 농업인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주출하시기 등을 조정해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쌀값 하락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중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소재(연접지역 포함) 농지에 벼를 재배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지원대상 가는 제곱미터(㎡) 당 25원, '24년 벼 재배면적 1,000㎡이상부터 최대 30,000㎡ 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작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28회 옷칠 목공예 대전'의 수상작 37건이 선정됐다. 사진은 대상 김의식 '삼단 광한루 진열장'(좌), 옷칠 금상 장형기 '흐르는 물결'(우) <사진=남원시>

제28회 남원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선정

김의식 작 광한루 진열장
전통·지역성·길상 '대상'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옷칠 분야 공모전인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에서 김의식 작가의 '삼단 광한루 진열장'이 대상(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 대전에서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 37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심사는 옷칠, 목공예, 나전칠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모집한 일반 참관인이 함께 심사에 참여했다.

대상에 선정된 김의식 작가의 '삼단 광한루 진열장'은 나전기법

을 활용해 옷칠 목공예 고장인 남원을 상징하는 광한루와 이몽룡 그리고 성춘환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조합해 전통성과 지역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며, 모란꽃과 나비 문양을 통한 길상적 의미를 농밀하게 해석해 표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작품의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 '남원 안숙선 명장의 여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 작품은 '제95회 춘향제' 기간 중 5월 2일~6일까지 '남원 안숙선 명장의 여정'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5월 27일~6월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촌마을 찾아가 사회서비스 활성화 적극 홍보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위탁사업 중 하나인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5월 9일까지 참여마을 신청 접수를 받으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관내 과소와 마을 또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마을로 직접 찾아가 △노인 인권 프로그램, 원에 테라피 △치매 예방프로그램, 공예 테라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푸드 테라피 △보이스피싱 예방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 등이 4회차에 걸쳐 시행된다.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은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3개 읍·면 홍보와 이장회의, 완주특 등에도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형숙 지역협력과장은 "농촌지역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과소와 마을에도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미취학 아동 대상 '건강한 치아 만들기' 앞장

순창군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3개소 245명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들의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 형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충치 없는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올바른 양치질 교육과 양치 체험 활동, 구강검진,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일상에서 올바른 양치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조기 구강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어린이용 교육 자료와 구강관리용품이 제공되어 가정에서도 꾸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제1회 '참두릅 여행' 축제 오늘 개막

이들간 양지천 일원서 먹거리·체험 어우러져

'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 축제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이들간 양지천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꽃잔디가 만개한 생태하천 양지천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순창을 대표하는 봄나물인 '참두릅'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체험,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다. 순창의 자연과 지역 농산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순창군과 순창농협이 공동 주최하고 동계·서순창·구립농협과 순창조공법인, 축협 등 지역 농업 단체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이번 축제에는 약 3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두릅 먹거리 장터'이다. 산나물 비빔밥, 두릅침, 두릅무침, 두릅튀김 등 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메뉴들이 관람객의 입맛을 유혹할 예정이다. 또한, 두릅 장아찌 만들기, 속 개떡 만들기, 두릅 색칠하기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행사 양일간 버스킹 공연으로 봄날의 감성을 더할 계획이다. 박형주, 백선혜, 피닉스 밴드, 헬로유기농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봄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아울러, 친환경 축제로 먹거리 부스

에서는 다화용기를 사용하고, 3만 원 이상 구매 시 8,000원 상당의 봄나물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 참두릅 여행은 순창의 봄을 알리는 소중한 축제다.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것"이라며 "양지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순창의 건강한 먹거리를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순창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리는 '순창 참두릅 여행' 축제는 제63회 군민의 날 및 제14회 구공순대 백세인 잔치와 같은 날에 열려,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준비 '시동'

문화·음식·관광 전문가 등 축제 추진위 20인 구성

완주군이 최근 제8대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위원회는 군의원, 언론, 기업체, 문화·예술·음식·관광분야 전문가와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20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축제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 등 축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맡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필환 위원이 제8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재미화 위원이 선출됐다.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임원선출 및 축제 기본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완주에서 본능을 깨우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시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춘향제 앞두고 치안·교통 '꼼꼼히'

'25년 지역 치안협의회 개최 교통 혼잡·안전 대책 구축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남원경찰서(서장 김우석)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축제인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남원시 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치안협의회는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민·관·경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5월 개최 예정인 춘향제를 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김우석 남원경찰서장, 그리고 남원시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 관리 및 치안 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 동안 예상되는



남원시와 남원경찰서는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6일 '2025년 남원시 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에 대비해 남원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춘향제는 남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인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관광객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해 유능한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빈틈없는 치안 유지에 총력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ITF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순창서 막 오른다

세계 14개국 300여 명 참가 글로벌 스포츠 도시 발돋움

순창군이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며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2025 ITF 순창 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과 대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국제대회로,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18세 이하 주니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무대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약 300여 명의 선수단 등이 순창을 방문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순창군은 이를 위해 테니스장 시설을 규격에 맞춰 정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예선전이 진행되며, 22일부터 27일까지는 본선 경기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본선 무대에는 각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주니어 유망주들이 진출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춘향제 차박지 캠핑족 인기 '예약 대란'

숙박난 해소 총 6곳 운영 일부 인기 공간 조기 마감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를 맞아 운영 중인 임시 차박 공간이 캠핑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 일부 인기 공간은 연휴 기간 예약이 이미 마감됐으며, 나머지 공간 역시 높은 예약률을 보이며 조기 마감에 예상된다.

올해 남원시는 숙박난 해소와 더불어 캠핑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총 6곳의 임시 차박 공간을 마련했다. 해당 공간은 총 340대 규

모로, 일반 승용차는 물론 캠핑카, 카라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은 모두 무료이며, 모든 공간은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현재까지 금암공원 공터와 요천생태공원은 연휴기간(5월 3일~5일)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다만 평일(4월 30일~5월 2일, 5월 6일)의 경우 일부 잔여 공간이 남아 있어 사전신청 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교룡산 국민관광지, 함파우 소리지음관, 유재꽃밭 인근 공터의 경우 연휴 기간 예약률이 60~70%에 이르고 있으며, 평일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들 공간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가족 단위 캠핑들에게도 적합해 꾸준히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휴 기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신청이 관망된다. 한편, 종합스포츠타운은 아직까지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 확보돼 있다.

사전 신청은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chunhyang.org)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 위치, 인근 목욕탕 정보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샤워시설과 취사장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개방된 공중화장실과 임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운영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정천저수지 생태탐방로 현장 점검

'지역 랜드마크' 지속 지원 약속

완주군 화산면 인근에 조성중인 '정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정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9월경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완주군의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자연 친화적인 탐방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를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6일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은 지역주민들 10여명, 관련부서 담당자 등과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마을주민들과 현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하는 한편, 급격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비탈면에 대한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주문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생태탐방로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신중년 여성 건강 챙긴다

노후 대비 예방관리 특강 호응

완주군이 봉동농업협동조합에서 신중년 여성(50~64세)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 대비를 위한 식습관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강을 운영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다가오는 농번기에 주부들의 건강상태를 돌보고, 동시에 가족들의 건강케어 방법과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 강화 요령 등을 전달했다.

박영례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꼭 지켜야 할 식사 관리의 기본 수칙과 건강행태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또한, 원에 활동을 통한 힐링과 스트레스 해소, 원에 작품 완성을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 오감을 자극해 불안이나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여가 활동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원 보건소장은 "노년인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요즘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역자원과 포괄적 연계·협력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고, 건강관리에 집중투자하며 소비를 아끼지 않는 이른바 '헬스 매디케이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백영복김준오 선수 전국장애인탁구대회서 동메달 획득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남 남해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경상남도장애인탁구협회 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장수군을 대표해 출전한 백영복 선수(TT3 체급)와 김준오 선수(TT5 체급)가 각각 남자 단식 부문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대회는 랭킹점수 60점이 부여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은 물론 보호자, 코칭스태프,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체급별 개인 단식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메달이 수여됐으며 치열한 경기 속에서 장수군 선수단은 뛰어난 집중력과 투혼을 발휘해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다.

최훈식 회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장수군의 위상을 높여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과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장애인탁구단은 국내외의 다양한 대회 참가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이천훈련원에서 열리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전을 통해 아시아지역 선수권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호박고구마 텃밭 분양 오는 10월 수확 체험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에 위치한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에서 '호박고구마 체험 텃밭'을 분양하고 있다.

올해 분양하는 고구마는 '호풍미'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한 '풍원미'와 당도가 뛰어난 '호감미'의 장점을 교배해 만든 품종이다.

텃밭은 1구좌(약 16㎡)당 5만 원에 분양되며, 분양 이후 풀매기, 순 따기 등 텃밭 관리는 마을 농장에서 전담해 바쁜 도시민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당도 높은 호박고구마로 널리 알려진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은 해마다 가족 및 단체 단위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오는 10월에는 수확 체험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직접 수확한 고구마를 가져가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분양 신청 및 문의는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063-433-8899)로 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맑은 물 공급 최선" 상반기 배수지 26개소 청소

임실군이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수도시설 배수지 26개소를 순차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맑은 물을 저장하고 수송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매년 반기마다 저수조정소업체에 위탁해 배수지 바닥 및 벽체 등 주기적으로 청소해 수도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돗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1개소씩 순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단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 홍보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맑은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N치즈, 12년 연속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치즈산업발전기여 품질신뢰성재입증

임실N치즈가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임실군 대표브랜드 '임실N치즈'가 12년 연속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동아닷컴과 iMBC,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후원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실물에 참여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브랜드 관련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은 임실N치즈의 품질과 신뢰성 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치즈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순간이다.

이 상은 소비자들이 직접 선정한 브랜드로,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며 임실N치즈



임실군은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임실군 대표브랜드 '임실N치즈'가 12년 연속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임실군>

가 브랜드 신뢰도에서 업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실N치즈는 자연을 담은 치즈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을 만들어왔다.

임실치즈농협과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신선한 원유로 만들어지는 임실N치즈는 맛과 품질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무가당 요거트는 최근 대장암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고,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트렌

드를 반영하듯 갈수록 소비자가 많아지는 임실군의 대표적인 치즈 유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의 12년 연속 수상은 고지정량 신부님의 헌신과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임실치즈산업 관계자분들 덕분"이라며 "임실군은 앞으로도 저지유제품을 활용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임실N치즈의 다양성을 확장해 건강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무인 항공 활용 공동방제

사업비 1억 7천만원 투입 벼 병해충 방제 효과 높여

무주군이 오는 25일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무인 항공을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벼 재배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무인 항공을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벼 병해충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사업비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367ha에 대한 방제를 진행 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방제 시기에 맞춘 신속하고 완전한 방제를 통해 '벼 도열병'과 '잎집



무늬나뭇병', '이삭누룩병',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벼멸구' 등을 방제해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무인 항공을 활용한 공동방제

외에도 병해충 정밀 예찰 및 방제, 벼 안전 생산 방제 지원, 벼 보급종 채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치유관광산업 민관 협력 본격화

치유관광산업위 첫 회의 진안군형 발전 방향 모색

진안군이 생활 인구 증대와 지속 가능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17일 진안읍 사통팔달센터 회의실에서 '진안군 치유관광산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방향과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산림치유·수(水)치유·치유 음식·생활 인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진안군형 치유관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조정자(퍼실리테이터)가 회의 전반을 이끌며 다양한 의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과제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진안군이 마련 중인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5개년 종합계획에는 △1차 연도(2025년) 치유 자원 조사 및 자원 간 연계 콘텐츠 개발 △2차 연도 상설 콘텐츠 운영 방안 마련 △3차 연도 치유 시설 간 연계 및 시설 맞춤형

콘텐츠 보완 △4차 연도 주민 대상 치유 인력 양성 △5차 연도 성과 평가 및 제도화 추진 등의 단계를 통해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남경 관광과장은 "첫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방향성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고유한 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안형 치유관광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이상기온 과수 저온피해 적극 대응

장수군은 최근 예년보다 낮은 봄철 기온이 이어지면서 과수 농가들은 개화기 서리와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사과와 배의 경우 저온 피해에 취약해 조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상저온 발생 직후 관련 부서에 신속 대응을 지시하고 지난 16일 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관계 공무원 및 읍면기관 관계자들과 센터 사과시험장을 방문해 이상저

온에 따른 꽃눈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최 군수는 방문한 자리에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 시대에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저온 피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저온 현상으로 일부 과원에서는 잎이 떨어지고 인공으로 말리며 꽃대 발생이 정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에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들은 생육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생육 회복을 위해 4중 복비 또는 요소를 얹면 시비하고 인공수분 실시 및 적화·적과 작업은 늦추어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저온피해 경감시설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8ha, 4억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냉해피해 저감제 지원사업'으로 총 600ha 면적의 과수 농가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청소년 금연 솜품 영상 공모

건강생활 실천 도모 오는 9월 12일까지 접수 청소년 금연을 기어 기대

무주군이 '2025년 청소년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솜품(Short-form)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금연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무주군 거주 누구나, 개인 또는 30인 이하의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다.

솜품 영상의 주제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문화 조성 △공공장소 간접흡연 폐해 △금연 지원사업

및 금연구역 안내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활동 등으로, 제작한 순수 창작영상물은 오는 9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은 접수된 작품을 적합성과 창의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작 4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흡연 실태를 공유하고 심각성을 일깨워 더 나은 건강생활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모로 보시면 된다"라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또래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와 금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최한주 장수군의원, 공공주택 지역 분산 촉구

장수군의 최한주 의원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 주택 신축과 균형 발전을 위한 균형질문을 실시했다.

최한주 의원은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장수군이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사업 100세대 및 청년 농촌보급자리사업 임대주택 30호, 전북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계획 등 장수군의 주택 신축 사업이 대부분 장수읍에 편중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택 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장수군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수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정책 방향과 면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분산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계남면 공동주택 80세대 사업계획승인(2028년 준공 목표),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추진 등 그간 면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분산 성과를 답했으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검토 중인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계획을 읍·면별 분산 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주 의원은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무주군이 조세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순회)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지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진규 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지방세 11건, 세외수입 18건에 대한 경고장도 부착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제24회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 5명 선정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진안읍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정남경)를 열고, 제24회 진안읍민의 날을 맞아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 김만성(65세) △공익장 강신팔(62세) △산업근로장 류영희(68세) △애향장 신공식(72세) △효열장 정미숙(54세) 김만성 씨는 진안군 및 청년회소 전북지구 감사, 진안읍 체육회장 등을 역임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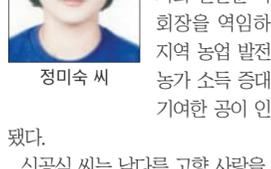
강신팔 씨는 2018년까지 진안읍 개심회를 이장 맡아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김만성 씨



강신팔 씨



류영희 씨

됐다. 류영희 씨는 지리산낙농농협 이사과 진안군 낙우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이 인정

됐다. 신공식 씨는 남다른 고향 사랑을 바탕으로 진안읍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미숙 씨는 오랜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돼 효열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나용일 부회장 장애인 날 맞아 백미 기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나용일 부회장과 자녀 나은옥 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100포(300만원 상당)를 17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이날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내 장애인 가구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은정을 전하고자 이루어졌다. 나용일 부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 나눔으로 행복을 얻고, 행복을 또다시 나누는 선순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김제 청하면 신금정미소, 어려운 어르신 위해 백미 나눔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신금정미소(대표 김기득)가 지난 16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백미 4kg 1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6명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맞춤형 돌봄 안부 확인 서비스와 함께 직접 전달했다. 김기득 신금정미소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정성 가득 딸기잼 맛보세요"

익산시는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성자)가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익산에서 재배된 신선한 딸기 3,000kg을 다듬고 세척한 후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저어 딸기잼을 만들었다. 딸기잼은 참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건강하고 딸기의 식감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 장학금과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공무원들, 무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기탁

공직자 1,089명 모금 동참 지역 간 협력 발판 기대

김제시 공무원들이 지난 16일 무주군에 산불 피해 지역 이웃들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2,195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3월 부남면에서 발생했던 산불 소식을 접한 김제시 공무원들이 모금을 통해 직접 마련한 것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모금에 동참했던 공무원 1,089명을 대표해 무주군을 찾은 정성주 김제시장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이 놀라고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뜻깊은 인연이 지역 간 협력의 발판이 되어서 무주군과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남원 청소년국악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서 공연

오는 9월12일~10월11일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소리와 이야기로 판소리의 역사를 배우는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관장 김미나 명창)어린이 청소년 국악단이 대한민국의 최초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사에 참여공연단체로 초청됐다. 이에 따라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어린이 청소년 국악단은 오는 9월12일~10월11일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하는 '엑스포'에 참가, 30여개

국에서 참여하는 세계적인 음악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민요 등 소리의 정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김미나 관장은 "이번 선정으로 판소리의 본향 남원에서 교육받은 판소리 꿈나무들이 판소리의 특별함을 국내를 넘어 세계에 알리게 됐다"면서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 전통문화사절단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 덕두영농조합환경연합, 산불 피해 성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정읍시 소성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지역 사회의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지역 단체가 6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16일 덕두영농조합법인과 정읍시친환경연합이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정읍시에 전달하며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탤다.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이번 기탁은 실질적인 위로이자 회복의 동력이 되고 있다. 덕두영농조합법인은 그간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기부 활동을 실천해왔다. 정읍시민장학재단에 500만원을 지속적으로 기탁하는 한편, 희망나눔 공유냉장고에 참살(5kg) 50포를 후원했다. 정읍시친환경연합은 학교·공공급식 납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나눔을 실천해온 단체다. 특히 북면사무소에 라면 100박스를 기부하는 등 지역 이웃을 위한 정거적인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지원 역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보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백제왕궁박물관, 지역 예술로 빛은 익산 선배

18일~5월 18일 전시회

익산의 풍경과 역사, 사람 이야기를 지역 예술인의 감성으로 풀어낸 전시가 백제왕궁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특별 기획전 '백제왕궁, 익산을 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의 개막식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와 협력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지역 작가 10인이 참여해 '익산'을 주제로 한 회화, 도자기, 공예, 조각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고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익숙한 골목길과 일상 속 정서까지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특히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성과 일상의 풍경이 공존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익산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백제왕궁박물관 1층 기획전실에서 5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기간인 4월 18~20일은 오후 11시까지 관람할 수 있어, 야행 체험과 전시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익산의 야경과 유산,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빛어낸 작품상을 통해 아름다운 익산의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 지사면 지사협, '밀반찬 지원사업'에 재료비 기탁

임실군 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길영, 민간위원장 변현삼)가 지난 15일 지사초등학교 농촌 유학 학부모 및 자녀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복 밀반찬 지원사업'에 사용될 재료비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해당 사업은 관내 밀반찬 지원이 필요한 10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밀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사초등학교 농촌 유학 가족들과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 '마당을 나온 암탉' 낭독극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에 맞아 어린이를 위한 낭독극 <마당을 나온 암탉>을 연다.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낭독극으로 각색한 것으로 오는 18일 완주군립둔산영어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둔산영어도서관은 강좌 'Hello 여행영어교실', 체험 '몸과 마음을 위한 힐링 아로마테라피', '연체 탈출 이벤트', 포춘쿠기와 함께하는 '달콤한 행운의 도서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 감곡면 6개 단체, 산불 이재민에 성금 230만원 전달

정읍시 감곡면의 6개 기관과 학교가 지난 16일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소성면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23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이장협의회(회장 김영배), 벼농사연구회(회장 박복남), 체육회(회장 강창수), 농민회(회장 박규동),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순용), 감곡중학교(교장 최용진)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십시일반 모금한 정성으로 이뤄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화재발생 원인 1위 "부주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담배꽂초는 불이 꺼졌는지 확인!!

화기는 항상 꺼져있는지 확인!!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 금지!!

음식을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一事一言〉



‘12.3 윤석열의 난’ 진압, 이제 야당과 시민의 시간(3)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의 모든 담론은 바로 21세기에 부활한 20세기 군사주의 파시즘, 19세기 왕당파의 논리였다. 그래서 어제 현재 판결에서 집권된 내란 진압은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이라기보다는 또다시 19세기, 20세기가 남긴 쓰레기와의 싸움이다. 이번 윤석열 내란 진압은 작가 한강의 말대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

전두환 군부의 5.18 쿠데타와 학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의 역사가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병사들의 ‘소극적인 입부 수행’, 계엄군을 몸으로 막은 국회 보좌관들과 시민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탄핵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머리와 가슴에 5.18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재의 탄핵 인용으로 ‘12.3 윤석열의 난’은 진압되었다. 그런데 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탄핵 결정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바로 내란 지지, 동조 세력의 힘이 한국에 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최상목 등 한국 최고 관료 엘리트들은 국가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부분을 형편없이 망가뜨리고도, 지난 122일 동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준 책임 주체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어떤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이번 현재의 국회 측 변호인 대

표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들 내란 지지 세력을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 이후 남은 ‘잔불’이라고 묘사했지만, 그들은 ‘잔불’이 아니라 곧 달철 대선에서 또다시 집권해서 민주주의의 성과를 모두 후퇴시킬 수도 있는 마그마에 가깝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이번 내란을 지원한 세력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 추궁과 단죄가 필요하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의 내란을 기획, 지원한 세력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이러한 쿠데타는 재발할 것이고 봉건 파시즘의 헌정 문란 사태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고 내란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형사, 민사적 처벌은 지금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만약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고, 이번처럼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면, 지금 한덕수와 최상목처럼 헌법을 위배하고도 버젓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무법천지 악육강식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내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은 절대 정치적으로 타협이나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윤석열의 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을 여전히 지지한 이유는 윤상현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90도 절을 한 일, 극우 선동가 전한길을 당의 최고 대변자로 대접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이 우익 대중을 자신들의 중요한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익 대중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우성향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언론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쟁을 벌여서라도 적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로 60대 이상의 노령층, 극우 보수 기독교인, 경상도 사람들이며 이들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정치 경제적 소외, 잘못 주입된 지식이나 정보, 오도된 신념, 신앙, 사고방식 때문에 이 극우 정치세력을 지지한다

이 중에서도 윤석열 내란을 적극 지지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집 단행동은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 즉 신앙에 기반을 둔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은 대화나 설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가 정치와 결합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신앙에 기반을 둔 우익 폭력, 기독교 파시즘화는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내란 국면에서 드러난 극우 파시즘의 사회적 기반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그 극복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한국의 대중 차원의 극우 파시즘 세력의 등장은 불평 등, 부의 극단적 편중, 그리고 사회 약자의 고립과 소외, 파편화의 산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질병인 이런 사회적 흐름은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가

능성이 크다.

이제 선택은 한덕수 대행 본인에게 달렸다. 그가 정말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각 공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위를 방패 삼아 권력의 양지만을 누리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면, 이는 곧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정이 그의 개인 정치 실현장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 헌정 질서를 농락하는 자에게 국민은 관용하지 않는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정치적 기회주의를 이어간다면, 탄핵이라는 국민의 심판과 함께 엄중한 사법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직은 권력의 사다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

의 자리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끝)

한덕수 권한대행 정치적 간보기 중단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헌정 상 예외적 지위를 악용해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듯한 처사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것이다. 국민은 지금 한덕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사유화와 행정의 정치화를 지켜보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지 못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최근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마치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남용한 사건이다. 현재가 이를 제지해서 망정이지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국가의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헌정 파괴 행위다. 현재 구성은 국가 통치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정파적 의도를 지닌 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권한이다. 권한대행이 이를 몰랐을 수 없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헌법의 맨 앞줄부터 깃잡은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덕수 대행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적 관리를 유도하는 저급한 ‘군불 지피기’ 행보에 나섰다. 이어 국회에는 불출석한 채, 대기업 등을 찾아다니며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명분은 민생이지만 실상은 지역 민심을 자극하며 ‘대통령 출마’를 노리는 저의가 엿보인다. 고향 호남을 찾는 것도 정치적 계산으로 의심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사적 발언에 대한 보도다. 언론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인들과의 대화 중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발언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고위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정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정적을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그의 발언은, 지금 그가 행정부 수반 대행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 추이를 관망하며 국민의힘과의 전략적 단일화를 통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월권이나 오만을 넘어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일종의 ‘내란 정치’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과 야합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이제 선택은 한덕수 대행 본인에게 달렸다. 그가 정말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각 공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위를 방패 삼아 권력의 양지만을 누리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면, 이는 곧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정이 그의 개인 정치 실현장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 헌정 질서를 농락하는 자에게 국민은 관용하지 않는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정치적 기회주의를 이어간다면, 탄핵이라는 국민의 심판과 함께 엄중한 사법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직은 권력의 사다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리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독자광장

경찰의 봄맞이 청소, 지역과 함께한 ‘따뜻한 발걸음’



봄 기운이 완연하다. 거리에는 연둣빛 새잎이 돋고, 따뜻한 햇살은 한겨울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낸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주변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돈할 필요성을 느낀다. 봄은 누군가에게는 설렘이지만, 우리 경찰에게는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계절이다. 경찰의 역할은 단지 범죄예방과 법 집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 역시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거리의

쓰레기 하나를 치우는 일이 때로는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지켜주는 경찰’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정읍경찰서는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겨울 내 묵었던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하고, 깨끗한 청사에서 주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경찰서 뿐만 아니라 지역관서에서도 지구대, 파출소의 얼굴인 캐릭터들을 모두 교체하여 기존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이제는 더욱더 눈에 띄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였다.

이번 환경개선 활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고리’였다.

쓰레기를 줍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



고, 골목골목의 사소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

그것이 곧 ‘생각 속 치안’의 시작이라 믿는다

정읍경찰서는 앞으로도 봄맞이 청소처럼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경찰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귀를

기울이고 발을 내딛는다면 지역 사회는 그 따뜻한 진심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봄, 우리는 청소를 했지만 마음도 함께 정돈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용히 피어난 신뢰와 연대가 남았다.

/정읍경찰서 경무과 김화금 경위

금요시선

목련 / 이재무

내 몸
동그렇게 구부려
그대 무명치마 속으로
굴러놓고
봄 한철 흥여처럼 앓다가

사월이 아쉽게도
다갈 때

나도 함께 그대와
소리 소문 없이
땅으로 입적했으면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사회’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나고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림,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벌초, 몸에 피는 꽃, 한 사람이 있었다 시선집으로는 오래된 농담, 길 위의 식사, 얼굴 등과 시평집으로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핀다면, 산문집으로 생의 변방에서 등 다수가 작품이 있다.

문화재 열전



여원치 마애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1998년 11월 27일

-소재지-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5-3번지

-시대- 고려시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민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 | | | |
|-------------------|-------------------|-------------------|-------------------|
| 전주시 010-9645-4113 | 군산시 010-8641-7942 | 무주지 010-6411-0835 | 부안지 010-7247-3947 |
| 중양지 010-9678-4271 | 남원지 010-2285-3987 | 임실지 010-8642-6502 | 고창지 010-2258-3734 |
| 인후지 010-8640-8855 | 익산지 010-9560-3075 | 진안지 010-2433-1721 | 완주지 010-3672-0308 |
| 팔복지 010-3015-4791 | 김제지 010-4572-6112 | 장수지 010-8626-6049 | |
| 송천지 010-5242-3694 | 정읍지 010-2800-2934 | 순창지 010-5312-7293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22회 고창청보리밭 축제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청보리밭에 빠지다

19일~5월 11일 공음면 학원농장
63ha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 장관
K-드라마 체험부스·포토존 운영

제22회 고창청보리밭 축제...5월11일까지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원 일원의 '고창청보리밭축제'는 지금 초록빛의 청보리가 살랑살랑 손짓하고 있다. 20만 여평의 광활한 대지에 K-영화와 드라마를 주제로 한 '제22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이번주 토요일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23일간 펼쳐진다.

63ha! 드넓은 대지에 초록빛을 뽐내는 청보리와 노오란 유채꽃이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상쾌함을 선물해준다. 청량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년 축제 기간에만 40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정도로 봄철 대표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고창의 학원농장. 학원농장이라는 이름은 옛 지명인 '한새골'에서 유래됐다. '한새'는 고창에 많이 사는 백로와 왜가리 등을 이르는 말로, 설립자인 이학 여사의 이름인 '학'자에 들을 뜻하는 한자어 '원'을 붙여 학의 들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학원농장은 봄에는 청보리와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백일홍, 가을에는 메밀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겨울엔 드넓은 설국의 천지로 변한다.

청보리밭에 빠진 K-컨텐츠

22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좀 더 특별하게 펼쳐진다. 그동안 장관만 보여주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녹색 쉼터'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봄바람에 파릇하게 훑날리는 청보리밭이 드라마와 영화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이번 제22회 축제는 '청보리

밭'과 'K-컨텐츠'를 주제로 삼았다. '꼭씩 속았수다', '도깨비', '백일의 낭군님' 촬영 스팟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드라마 의상 대여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드라마 같은 풍경과 영화 같은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리밭 내 소무대를 조성하여 클래식, 고창농악 등 지역문화공연과 버스킹 등 다채로운 음악관련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안전하고 바가지 없는 축제

먹거리 안전도 빼놓을 수 없다. 군은 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바가지 요금없는 축제 운영을 위해 물가안정 부스 운영, 식사료 및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도 시행한다.

이는 축제 개최의 시너지 효과가 지역경제에 가지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 경관축제 1번지인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장기적 발전 방향을 찾는 시도다. 더불어 차량 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등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군민과 관광객이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 오는길 :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 158-6 (내비게이션에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검색)
- ◆ 문의 : 063-563-9897
- ◆ 홈페이지 <http://www.borinara.co.kr>

